

#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인권길라잡이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인권길라잡이**

한국의 동물권 운동은 여전히 뜨거운 현안인 개 식용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 전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동물권 운동은 그것이 싹 트던 당시보다 훨씬 깊고 풍부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이제 개와 고양이로 대표되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체험동물, 그리고 야생동물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카라의 슬로건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권리만이 다뤄지던 곳에서 동물권 운동은 인간중심주의와 종 차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물권 운동은 우리가 이뤄야 할 공동체가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넘어선 생명공동체임을 알려 왔습니다.

인권을 넘어 생명권을 지향한다는 우리의 선언은 인권의 중요성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인권보다 동물권이 시급하다거나, 인권 없는 동물권 운동이 가능함을 의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에 모든 생명의 권리 또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권 운동은 본래 동물을 위한 것이지만 이 운동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동물이 소외되고 착취되는 세상을 만든 것은 인간이기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물권 운동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외침이 사람을 향한다면 우리는 운동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위해야 할 동물권 운동이 인간 사회의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답습한다면 우리 운동의 목적과 방법론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본 책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인권 감수성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중 인권에 대한 질문을 솔하게 마주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성별, 장애, 나이 등에 대한 통념이 동물에 투영되는 경우가 있었고, 입양이나 봉

사, 동물권 교육 등 카라 활동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행동이 더 인권적일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물을 위한 활동이지만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동물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들과 동료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진 몇몇 활동가가 자발적으로 모여 작은 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눴고 때로는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확인하며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 소중한 과정의 결과로서 본 책자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이라는 영역에서 카라 활동가들은 아직 출발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권 활동에서 인권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책자 준비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더 높은 인권 감수성으로 우리의 활동을 돌아보며 개선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첫 시도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책자가 단 하나의 옳음을 제시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선언에 그치는 대신, 우리를 비롯한 동물권 활동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활동과 인권 감수성을 돌아보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차별 없는 사회,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인권·동물권 활동가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 목차

여는 글	4 p
목차	6 p
구성	7 p
<b>1. 동물과 새로운 관계 맺기</b>	8 p
동물의 특정 품종에 대한 일반화	9 p
‘순화’라는 용어의 인간중심주의	10 p
동물과 활동가에게 성별화된 호칭 사용	12 p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동물 이름 짓기, 동물 외모/성격/행동 묘사	14 p
이성애주의에 따른 동물 행동 묘사	15 p
<b>2. 인권적인 동물권 교육</b>	18 p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교육 대상의 호칭	19 p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동물의 호칭	21 p
동물권 교육, 집회 현장의 동물 동반	23 p
동물권 교육에서의 가족 다양성 존중	24 p
<b>3. 차별 없는 봉사과 입양</b>	26 p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27 p
카라봉사대 참여 나이 제한	28 p
차별 없는 입양 상담① 미혼/비혼	30 p
차별 없는 입양 상담② 장애	32 p
<b>4. 평등한 언어, 편견 없는 표현</b>	34 p
활동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에 대한 호칭	35 p
정상가족주의에 따른 ‘대부모’ 표현	37 p
장애인 배타적 언어 사용	39 p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언어 사용	41 p
집회 현장에서의 혐오 언어 사용	43 p
성별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디자인	45 p

<b>5. 모두에게 열린 카라 활동</b>	46 p
쉬운 언어 사용	47 p
온라인 접근성 - 시각장애인/고령자	48 p
오프라인 접근성① 카라 더불어숨센터 방문 - 신체적 장애인	49 p
오프라인 접근성②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시청각 장애인	50 p
모두를 위한 화장실 만들기	51 p
(사)동물권행동 카라 소개	53 p
함께 한 사람들 후기	54 p
인권단체 목록	55 p

## 구성

### 사례

동물권 운동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례는 카라 활동가들의 직·간접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발언 내용 자체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

### 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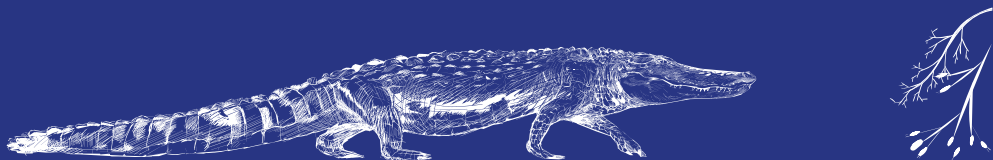
사례에서 어떤 차별이 발견되는지 서술합니다. 어떤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 차별의 바탕에는 어떤 통념이 있는지, 차별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논합니다.

### 대안

동물과 사람,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합니다. 차별을 바로잡고 더 인권적인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1. 동물과 새로운 관계 맺기



## 1-1 동물의 특정 품종에 대한 일반화

#종차별 #품종 #일반화 #인간중심주의

### 사례

사람들은 흔히 비글, 코카 스파니엘, 슈нау저와 같이 활동량이 많은 개를 악마견 혹은 지옥견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페르시안 고양이는 게으르다고 표현합니다.

“저 개는 3대 악마견 중 하나인데 키우기 어렵지 않을까요?”

“역시 페르시안 고양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석 위에 앉아만 있네요.”

### 논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품종’이란 인간이 유전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품종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신체상의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물의 특정 품종이 가진 성격을 일반화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품종 안에도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하며, 동물의 사회화 교육 정도나 경험, 반려인과의 생활에서 형성된 생활 습관에 따라 개체마다 고유한 성격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악마견의 문제행동’은 사람이 동물의 습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활동량이 많은 개는 산책이 부족하거나 에너지를 충분히 소진하지 않을 경우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품종에 대한 일반화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품종의 성격에서 찾게 하며,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이나 생활 습관 등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 대안

동물도 사람과 같이 각각의 개성과 성격이 존재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품종에 따라 동물의 성격을 일반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1-2 ‘순화’라는 용어의 인간중심주의

#순화 #동물 본성 #야생성 #인간친화성 #인간중심주의

### 사례

사람과 함께 지낸 경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동물은 야생성이 강해서 사람이 다루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은 단체 활동가들이 보호하면서 돌보기가 어렵고, 사람에게 친숙한 동물에 비해 입양 가족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동물이 사람의 손길이나 사람과의 관계 및 생활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다루기 쉽게 동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흔히 동물 ‘순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양이는 아직 야생성이 있어서 아주 사나워요.  
입양 보내려면 순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논평

‘순화’는 사전적으로 ‘정성 어린 가르침으로 감화함’,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 ‘감화’란 ‘좋은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감정을 바람직하게 변하게 함’을 뜻합니다.

동물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서 사람에게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신뢰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순화’라면, 앞으로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동물에게 ‘순화’는 유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물이 사람에게 친숙함을 느끼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고 사람을 경계하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야생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사람의 필요나 편이에 따른 것은 아닌지, 사람에게 친숙한 상태를 과연 바람직하거나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화’ 외에도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온 용어 중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적인 표현을 모색해야 합니다.

### 대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용어일지라도 그 용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해당 의미가 동물의 입장에서 부적합하거나 부당하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순화’가 동물의 성격을 사람과 함께 살기 좋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람 친화적’, ‘인간 친화적’ 등의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그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용어가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지 성찰하고 대안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은 섬세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활동가 스스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3 동물과 활동가에게 성별화된 호칭 사용

#성별 #성별 이분법 #성별 정체성 #성 중립적 표현

#### 사례

성별화된 호칭이란 상대방이 특정한 성별을 가졌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호칭을 말합니다. 가령 동물과 활동가의 관계에서 활동가를 ‘누나’ ‘오빠’ ‘언니’ ‘형’ 등으로 지칭하거나 동물을 ‘공주님’ ‘왕자님’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성별화된 호칭 사용에 해당합니다.

“(고양이에게) 너무 멋있다, 우리 왕자님!”

“(개에게) 루루야, ○○언니가 너 불러~”

“(개에게) 그렇게 예쁘게 쳐다보면 누나 심장에 무리가 간단다.”

#### 논평

‘성별은 생물학적 요인에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별에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개인의 선택이 개입됩니다. 가령 트랜스젠더와 같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성별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별에도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 차이,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별 이분법이 공고합니다.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여성 또는 남성으로 구분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합니다. 이에 누군가를 부르는 말인 호칭 또한 부르는 사람이 상대방을 여성이나 남성이라고 판단하고 성별화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인 활동가뿐 아니라 동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 사회의 성별 문화에 따라 동물과 활동가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동물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동료 활동가가 자신의 성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으로 판단한다면, 상대방의 성별 정체성을 오인하고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인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을 벗어난 존재를 배제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또한, ‘공주님’이나 ‘왕자님’ 등의 호칭은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의 어떤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 공주나 왕자를 떠올렸다면, 공주나 왕자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고정관념을 동물

에게 투영하며 계속 유지한다면 그 고정관념은 더욱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 대안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시스템 외에도, 트랜스젠더나 젠더퀴어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성별 이분법에 따라 상대방의 겉모습만으로 성별을 짐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다른 호칭보다는 이름이나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 성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단, 성별화된 호칭이더라도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이 모두 원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1-4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동물 이름 짓기, 동물 외모 / 성격 / 행동 묘사

#성별 고정관념 #성별 이분법 #성차별 #외모 평가

### 사례

동물의 외모를 성별에 따라 묘사하며 동물 행동의 차이도 성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의 이름을 성별에 맞춰 여성형·남성형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컷은 ‘꽃순’ ‘예뻐’ ‘핑크’ ‘공주’와 같이 예쁜 외모와 연결되는 이름이 많지만, 수컷은 활발하고 용감한 성격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꽃순이는 덩치는 크지만, 겁 많고 소녀소녀한 천상 여자예요.”  
“수컷고양이라서 그런지 역시 용감하고 대범한 성격입니다.”

### 논평

동물을 돌보거나 치료할 때 성별은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지만, 병력, 성격, 경험이나 습관과 같은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름을 성별에 따라 짓고, 동물의 외모나 성격, 행동에 대해서 성별을 강조하며 묘사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차별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규정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판단과 선택으로 성별을 중심으로 동물 행동을 설명하거나 이름을 지을 수는 있지만, 동물권 단체 활동가로서 잘못된 인간의 문화를 답습하는 언어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 대안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별이 외모, 행동, 성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짓거나 동물에 대해 표현할 때는 성별 구분이 아닌 각 개체의 개성이나 특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 1-5 이성애주의에 따른 동물 행동 묘사

#이성애주의 #동성애 #성적 지향 #다양한 섹슈얼리티

### 사례

이성애주의란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성별만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 간의 사랑인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때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 다른 형태의 사랑이나 성적 관계는 모두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성애주의에 따라 동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경우로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① 성별이 같은 동물들 간의 친밀함을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② 성별이 다른 동물들 간의 친밀함을 전부 성애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묘사합니다.(이성 동물들 간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연애 관계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③ 성별이 다른 사람들 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이에 빗대어 동물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너는 수컷인데 왜 수컷을 따라다녀?”  
“(수컷의 곁에 다가간 암컷에게) 너 이 오빠가 마음에 드는구나?”  
“동물이 간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멋진 이성을 보고 반하는 것처럼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 논평

성적 지향이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성적, 감정적 끌림을 의미합니다. 이성애주의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이라 간주하지만, 이성애는 다양한 성적 지향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 이름 붙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해, 성적/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에는 일일이 이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은 형태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우리의 성적 욕망,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또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와 같은 일상적인 질문이 레즈비언 여성에게는 답하기 곤란한 차별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성애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하기에,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애주의적 표현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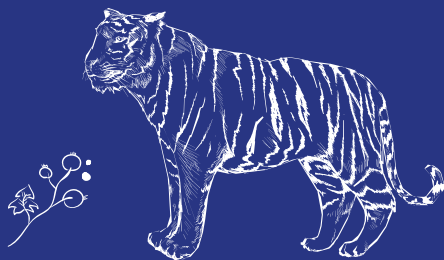


람뿐 아니라 동물을 묘사할 때도 나타날 수 있기에, 동물의 습성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자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안

이성애주의에 따라 동물의 행동이나 동물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빗대어 동물에 관해 설명할 때에도 이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2. 인권적인 동물권 교육



### 2-1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교육 대상의 호칭

#성별 #성별 정체성 #외모 평가 #나이 위계 #평등한 호칭

#### 사례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강사가 교육 대상을 부를 때 '남학생' '여학생' 등 성별화된 호칭이나 '키 큰 학생', '안경 쓴 학생' 등 외모에 관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대상이 10세 미만이거나 10대인 경우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 손든 여학생이 한번 말해볼까요?”

“창문 옆에 안경 쓴 학생이 이 퀴즈 정답을 맞춰보세요.”

“친구들, 그림을 다 그렸나요? 잘했어요, 친구!”

#### 논평

교육 대상이 어떤 성별 정체성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성별을 짐작하여 부른다면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외관이 '여성'으로 보이더라도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경우,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화하더라도 말투, 몸짓, 헤어스타일, 패션 등 젠더 표현적인 측면에서 '남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키가 크다', '안경을 썼다', '피부가 하얗다' 등의 묘사가 포함된 호칭을 사용할 경우, 교육 대상의 외모를 평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교육 대상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호칭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준과 연동되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대방을 놀림거리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강사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교육 대상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호칭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사전적 의미 또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서 '친구'는 나이 위계를 반영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깝게 오래 사귀어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당 호칭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일정 수준의 관계 형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호칭의 사용을 서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어렵기에 교육 대상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대안

교육 현장에서 강사는 교육 대상의 성별, 외모, 나이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이' '친구' '여학생' '남학생'과 같은 호칭보다는 '학생'처럼 중립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인을 불러야 할 때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 '창가에 모자 쓴 학생', '방금 얘기한 분의 뒷자리 학생' 등 옷차림이나 위치를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2-2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동물의 호칭

#종 차별 #동물의 유아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동물

### 사례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동물을 '아이' '애' '애네'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는 '아이'의 준말이며 '애'는 '이 아이'의 준말입니다. '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남에게 자기 자식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의 실제 나이에 상관없이 동물을 '아이'로 지칭하는 것은 동물을 유아, 어린아이로 인식하게 합니다.

“(유기동물을 설명하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보호소에 갑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말하며) 저와 함께 사는 아이는 벌써 10살이 되었답니다.”

“(오랑우탄 무리를 설명하며) 팜유로 인해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애네가 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 논평

동물을 '아이'로 지칭하는 것은 각 동물이나 특정 종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보다는 어리고 약한 존재, 일방적인 돌봄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인간임을 잊게 하고, 오히려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동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합니다. 동물을 유아화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을 미숙하고 약한 존재로, 따라서 성인이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 대안

동물이 약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 대상이 동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 있다면 동물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사회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동물은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생명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이'라는 호칭보다는 '방금 영상에서 본 개는', '유기된 동물들은', '저와 함께 사는 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정보나 동물을 둘러싼 상황을 전달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동물을 '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서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지금까지 단체 활동을 알리거나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방식이 호소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 동물을 인식하게 하려는 활동 목적과 상충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활동의 목적과 방법론이 일치할 수 있는 캠페인·교육·홍보·모금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 2-3 동물권 교육, 집회 현장의 동물 동반

#동물 동반 #동물의 안전 #동물 복지

### 사례

동물권 교육이나 집회 현장에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라는 '동물 없는 동물권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동물과의 교감을 이유로 동물을 교실 등 교육 현장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캠페인 효과나 이슈화를 위해 유명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동물을 야외 집회에 동반하기도 합니다.

### 논평

동물이 낮은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거나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동물의 안전성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이나 집회 현장에서 동물 복지가 저해된다면, 이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교육 및 집회의 취지와 상충합니다.

### 대안

교육 및 집회 현장에 동물을 동반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거나 시끄러운 장소는 아닌지, 동물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동반하는지, 동반하려는 동물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교육 및 집회 현장에서 힘들어하지는 않을지 등 동물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합니다. 사진, 영상, 설명 등으로 동물 동반을 대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대체하는 것을 지향하되, 그럼에도 동물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동물 돌봄 책임자를 지정하고 돌봄 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 2-4 동물권 교육에서의 가족 다양성 존중

#가족 형태 차별 #정상가족주의 #가족 다양성 #유동적인 가족

### 사례

동물권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대상의 가족이 당연히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전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평생 돌보는 책임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평생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교육 시)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해요.”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야생동물 로드킬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반려동물도 여러분이 평생 책임감으로 돌봐야 할 가족입니다.”

### 논평

정상가족주의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이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이성애 결혼과 자녀 출산이 포함되곤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지만, 정상가족주의는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전형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동물권 교육 시 가족을 말하기 위해 ‘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한부모 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조부모 등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평생 함께 지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변화를 겪는 수많은 가족을 간과합니다. 가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 상황에 따라, 혹은 개인의 선택과 결심으로 그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 대안

가족 구성원, 파트너, 동반자, 함께 사는 사람들, 양육자 등 정상가족을 전제하지 않는 대안적인 표현을 모색합니다. 동물을 ‘가족’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상가족주의를 넘어 가족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불변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동물에 대한 평생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펫숍에 전시된 동물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동물들은 가족구성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 가족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동물은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동물 가족에 대한 사람의 평생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 가족의 유동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동물 가족에 대한 평생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더 새롭고 섬세한 설명 방식이 필요합니다.

### 3. 차별 없는 봉사과 입양



#### 3-1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성별 #성별 이분법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평등한 봉사활동

##### 사례

카라봉사대는 매달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에 방문하여 청소, 치료 등을 진행합니다. 봉사활동에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데 봉사자의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라 봉사대 활동 현장에서 힘쓰는 일을 남자 봉사자에게, 정리하는 일은 여자 봉사자에게 배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무거운 사료를 날라야 합니다. 남자 봉사자분들 와주세요.”

“여성 봉사자분들은 꼼꼼하시니 그릇 정리 부탁드립니다.”

##### 논평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카라 봉사대에서 요구하는 체력과 기술에서 성별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남성이 힘이 세다는 통념과 달리 어떤 남성보다 힘이 센 여성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현장에서 ‘효율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빠르게 옮기는 것도 좋지만, 각자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명이 협력하는 과정도 소중합니다. 모든 업무는 충분한 설명과 학습이 선행된다면 누구나 맡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안

성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누구나 카라 봉사대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이든 맡을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 일은 힘을 많이 써야 하는데 자원 받습니다.” “정리 업무를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또한, 카라봉사대에 신청을 받을 때, 참여자가 원하는 역할을 미리 선택하게 하여 담당 활동가가 역할 분담을 미리 계획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카라봉사대는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해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빠른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참여 신청을 받는 과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 3-2 카라봉사대 참여 나이 제한

#나이 차별 #나이 위계 #평등한 봉사활동

### 사례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하는 카라봉사대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봉사활동 관련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사람, 그리고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카라봉사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봉사 신청자: “유기견을 키우면서 동물보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동물사랑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카라봉사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활동가: “죄송합니다만, 미성년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논평

카라봉사대는 도움이 필요한 사설 보호소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보호소 환경 개선과 개체수 조절(중성화) 등을 지원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다소 야생성이 강한 동물도 있어서 물림 사고나 동물 탈출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카라가 운영하는 보호소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활동가가 위험요소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미성년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를 조심성 없고 책임감 없는 존재로 일반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는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이와 봉사에 필요한 역량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고 위험이 크고 업무가 미숙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연령차별입니다.

### 대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역할 수행에 차이가 있다거나 사고 위험이 발생한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동물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학습이 있다면, 누구나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봉사 역할을 다양하게 만들면, 나이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경험의 차이, 신체의 차이 등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활동은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봉사자 대상 교육, 봉사 신청 전 체크리스트 등은 안전한 봉사 활동을 위한 조치로 적절하며, 자원 봉사를 통한 시민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라의 반려동물복지센터 '더봄센터'는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 차별 없는 다양한 봉사활동은 더봄센터에서 반영하여 구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카라 더봄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현재 사설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카라 봉사대에 다양한 봉사 활동 기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토론해봅시다.

### 3-3 차별 없는 입양 상담① 미혼 / 비혼

#가족 형태 차별 #결혼/미혼/비혼 #정상가족주의 #가족 다양성

#### 사례

카라에서 돌보고 있는 동물에게 입양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입양 신청자가 미혼이나 비혼이라면 입양확정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미혼/비혼은 기혼의 경우보다 가족 형태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혼 입양 신청자는 결혼 계획, 미래의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반대할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미혼이신데, 결혼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 미래 배우자분이 반려동물을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논평

유기동물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카라는 동물의 평생 반려가족을 찾아주고자 노력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기는 등 가족 형태가 변했을 때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 형태에 따른 파양률이나 학대, 유기 등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이는 입양 상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사실상, 모든 가족 형태에서 질병, 이민,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파양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가족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족 형태가 변화한다고 해도 반려동물을 평생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혼자 사는 여성’, ‘결혼하지 않은 남성’ 등 미혼/비혼 신청자를 잠정적으로 반려동물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입양가족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혼 여부, 가족 형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개입되지는 않는지 활동가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대안

입양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동의, 펫티켓 숙지 유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 문제행동 발생 시 방안, 반려동물이 아플 때 고액의 치료비가 들 경우의 계획 등 입양 신청자의 반려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구성합니다. 파양 원인, 파양 비율 등을 조사하며 입양 판단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객관적 수치로 판단을 하더라도 예상

을 벗어나는 긍정적/부정적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특정 가족 형태만 입양 우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에 따른 각각의 입양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라도 내담을 통해 입양을 보낼 수 없다는 판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객관화하거나 문서화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객관적인 조건은 충족하지만 입양 대상자에서 제외될 만한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경우 입양 확정 혹은 입양 거절 판단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 3-4 차별 없는 입양 상담② 장애

#장애인 차별 #반려생활 가능 조건 #동물복지

#### 사례

카라 더블어숨센터에 장애인이 입양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마포에 위치한 카라 더블어숨센터는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입양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입양은 더 어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카라 더블어숨센터 1층에 위치한 입양카페 아름품에 시각장애인이 방문하여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을지 문의한 적 있습니다. 형체만 구분 가능한 시력을 갖고 있던 내담자는 입양 상담을 받으면서 동물 입양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아름품에 다시 방문해서 유기견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 논평

카라 입양기준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혼 입양신청자의 경우처럼 장애인도 입양 절차 과정에서 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동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카밍 시그널(몸짓 언어)로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지, 함께 충분히 산책할 수 있는지 등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이라서 겪게 되는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다른 존재를 잘 돌보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고착화할 수도 있습니다.

####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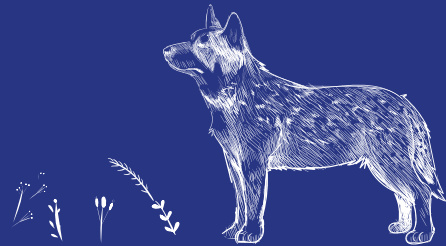
장애인과 입양 상담을 진행 시, 장애가 있어서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려생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누구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특정 집단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에 따른 개인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에서 반려동물 입양의 우려점이 있다면, 장애의 어떤 증세가 어떤 우려를 만들어내는지 정리해봅니다. 또한 우려점을 보완할 대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장애인과 반려동물의 모두 안전한 반려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해봅시다.

## 4. 평등한 언어, 편견 없는 표현



### 4-1 활동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에 대한 호칭

#성별과 나이를 함의하는 호칭 #상황에 맞는 중립적 호칭

#### 사례

활동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에게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등 성별과 나이를 함의하는 호칭, 가족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까 반려동물 문제로 전화상담 받으셨던 할머니께 다시 연락해주세요.”

“오늘 애니멀호더 아저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릴 예정이에요.”

“어머님, 저희 단체 리플릿 좀 받아주세요.”

#### 논평

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외모나 목소리만으로 상대방의 성별과 나이를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특정한 성별과 나이를 함의하는 호칭, 가족적인 호칭을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안

외모나 목소리 등으로 상대방의 성별과 나이를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함의하는 호칭, 가족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대신 '내담자' '구조자' '입양자' '회원님' '후원자님' 등 활동에 적합한 호칭이나 '선생님' '시민님' 등 존중을 담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시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활동 과정에서 성별, 나이, 국적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정보를 공개할 시 특정 성별, 나이, 국적 등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카라는 지난 2017년, 한 외국인 유학생이 유기한 고양이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양이를 유기하기 전에 카라 센터를 찾았던 그는 자신의 중국인 친구에게 고양이를 위탁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카라가 이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자 해당 유학생이 중국인일 것으로 추측한 사람들이 중국을 혐오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게시글의 목적이 특정 성별, 나이, 국적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라도 밝히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4-2 정상가족주의에 따른 ‘대부모’ 표현

#가족 형태 #가족중심주의 #정상가족주의 #중립적 표현

### 사례

카라가 돌보고 있는 동물 중에는 입양 가능성이 매우 낮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평생 병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거나 야생성이 강한 동물, 나이가 많은 동물은 동물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조 동물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만 입양할 수는 없는 사람들은 특정 동물을 지정하여 후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카라는 한 마리의 동물과 결연하여 후원하는 사람을 과거에 ‘대부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 입양을 진행할 시, 일반적인 표현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 또는 가족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모가 되어 레오(고양이)의 삶을 응원해주세요.”

“이 아이(동물)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반려동물은 여러분의 평생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논평

동물과의 관계를 부자 혹은 모자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모’ ‘부모’ ‘평생 가족’ 등은 현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 미혼모/부 가족, 입양가족, 조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돌보는 책임을 가족, 특히 부모에게 지우는 의미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 대안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되, 가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인 표현을 모색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8년부터 대부모 후원이란 표현을 ‘1대1 결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체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엄마, 아빠라는 표현 대신 반려인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진행할 때, 일반 시민은 부모, 가족이라는 표현에 익숙해하며 더 책임감을 느끼고 공감합니다. 대안적인 표현이 대중을 설득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토론해봅시다.

## 4-3 장애인 배타적 언어 사용

#장애인 차별 #신체 은유 표현 #비장애인중심 표현

### 사례

신체적 능력과 상관없는 맥락에서 신체적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물권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공장식 축산 철폐를 위해 카라는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활동가들은 오늘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 논평

대안적 표현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 은유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용어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 대안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도 ‘단어’ 안에 사회가 정상이나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신체적 능력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면 되도록 대안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대안으로 여겨지는 단어 중 ‘파악, 입장, 인식’과 같은 한자어의 경우, 한자의 뜻이 대부분 신체 표현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의 범주를 넘어서 타인을 배제하지 않는 언어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처지(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공장식 축산 철폐를 위해 카라는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활동가들은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시도해보다’라는 단어에서 ‘보다’는 보조사로 신체 은유 표현이 아닙니다. 또한, “카라 활동가는 구조를 위해 달려갔다.”는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에 신체적 능력의 은유 표현이 아닙니다. 이처럼 맥락 없이 사용되는 신체적 은유 표현과 사실 명시의 차이점을 함께 구분해봅니다.

## 4-4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언어 사용

#장애인 차별 #대상화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 활동

### 사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가 그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정상적이거나 결함이 있어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 혐오 언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 동정심을 갖고 대해야 하는 존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물권 운동에서 애니멀 호더나 동물 학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신적 장애를 그 원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애니멀 호더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자 A씨는 조현병 초기 증상이 보였으며 인간에게도 폭력을 가할 위험성이 나타났다.”  
“애니멀 호더 B씨는 합리적인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 논평

장애는 정도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환경을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달라집니다.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넘어,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고 불쌍한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소수자로 대상화하는 차별적 언어입니다.

애니멀 호더는 정신적 장애의 소지는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없기 때문에 장애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안락사 위험에 놓인 동물을 여러 마리 구조하거나, 보호소를 운영하다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마리의 동물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애, 성별,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안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고 결함이 있거나 불쌍한 존재로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고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사건을 알릴 때는 애니멀 호더 혹은 동물 학대 용의자의 장애, 성별, 나이, 직업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 활동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합니다. 장애, 성별 등이 사건의 원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합니다.

“A씨의 집에서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주민들은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 함께 생각해보기

특정 집단이 애니멀 호딩이나 동물 학대가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면, 내부에서 사건특징, 사회구조적 문제, 대안 등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합니다.

\* 애니멀 호더: 동물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능력 이상의 과도한 마릿수를 키우거나 방치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동물을 수집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물건을 강박적으로 주워오며 버리지 못하고, 물건을 통해 위안을 느끼는 행동을 말하는 ‘호딩’(hoarding),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뜻하는 ‘호더’(hoarder)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 4-5 집회 현장에서의 혐오 언어 사용

#악마화 #인격 모독 #나이 차별 #혐오 언어 #성숙한 활동 문화

### 사례

집회 현장에서 동물권 활동가들이 육견협회 회원이나 개 농장주 등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아!”

“이 괴물아!” “이 악마야!” “이 좀비들아!”

“개백정들, 지옥에나 가라!”

### 논평

집회 현장에서 동물권 활동가들이 주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동물 학대자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자입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의 행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활동가들은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싶은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는 언어는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문제, 우리가 저항하고자 하는 사회구조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방해가 됩니다. 특정 개인이 악마처럼 사악한 사람이어서,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와 같아서 동물을 학대했다는 설명은 그릇된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합니다. 이는 개인의 동물 학대 행위를 뒷받침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드러내지 못하며, 동물 학대를 통해 생산된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 언어의 사용은 동물권 활동에 동참하거나 이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반감을 주거나 우리 측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더욱 성숙한 집회 문화, 활동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대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보다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으며 그것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비판하는 방식

을 취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혐오의 언어인지 비판의 언어인지 스스로 성찰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동물권 활동 현장에서의 혐오 언어 사용 문제는 한 단체 안에서 다뤄지기보다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권 활동이 더욱 인권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너른 공감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4-6 성별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디자인

#성별 고정관념 #자유로운 젠더표현

### 사례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을 디자인할 때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을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나타냅니다. 가령 여성에게 분홍색, 남성에게 하늘색을 사용하거나, 여성을 긴 머리와 치마 복장으로 나타내거나, 동물을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의인화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논평

모든 사람이 '여성'이나 '남성' 둘 중 하나로 구분되며 성별에 적합한 외모와 옷차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입니다.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편견에 따라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별과 상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외모와 옷차림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 대안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을 디자인할 때 가급적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동물은 동물의 본성에 맞는 모습으로 표현하며, 부적절하게 의인화하여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5. 모두에게 열린 카라 활동



### 5-1 쉬운 언어 사용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 #영어 표현 #접근성 강화

#### 사례

게시글에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 영어 표현 등이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명서나 보도자료 등은 주장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서술하려다 보니 글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 논평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 영어 표현 등을 자주 사용하면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의 전달력이 떨어져 동물권 활동에 대한 일반 시민의 너른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활동과 주장을 알리는 것이 목표라면 글을 쓸 때 '전달력'과 '접근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대안

가급적 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문 용어나 영어 표현을 사용할 경우, 각주와 괄호 등의 형태로 해설을 제공합니다. 문장은 가급적 짧게 작성하며, 주제가 달라지면 단락을 구분합니다. 핵심 문장에는 강조 표시를 합니다. SNS에는 글의 전문을 옮기기보다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을 사용합니다. 카드뉴스나 도표 등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전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5-2 온라인 접근성 - 시각장애인/고령자

#장애 #고령 #온라인 접근성 강화

### 사례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릴 때, 텍스트 없이 포스터와 같은 이미지 파일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텍스트를 포함하더라도 포스터 이미지에 있는 중요 정보는 표기하지 않고, 이미지에 없는 부가 설명들만 텍스트로 넣기도 합니다.

### 논평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시각적 정보의 취약계층입니다. 온라인 정보가 필수적인 시대에 시각장애인, 난독장애인, 시력이 약한 고령자 등은 보조기술이 없으면 온라인 사용에 불편을 겪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각 장애인은 스크린리더를 사용합니다. 스크린리더는 인터넷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합니다. 하지만,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구성된 콘텐츠는 스크린리더가 변환할 수 없습니다.

### 대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카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장애인과 고령자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포스터를 대신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과 고령자의 웹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텍스트도 함께 공유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스크린리더를 이용하더라도 장애인 온라인 접근성은 비장애인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시각 장애는 앞을 전혀 못 보는 맹맹도 있지만, 저시력 장애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 제공뿐 아니라 글자 확대 서비스, 명도 대비 향상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봅시다.

## 5-3 오프라인 접근성①

### 카라 더불어숨센터 방문 - 신체적 장애인

#장애 #장애인 이동권 #접근성 강화

### 사례

카라 더불어숨센터에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 없습니다. 센터 입구도 계단으로 설계되어 경사로가 없고, 건물의 통로도 좁은 편인데다가 물품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비장애인의 이동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나 신체적 장애인이 카라 더불어숨센터를 주변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입양할 동물을 만나보려 센터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센터에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 논평

카라 더불어숨센터는 오래된 건물을 구매하여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증축 허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나 신체적 장애인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센터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대안

단체 건물에 신체적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과 원인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이 방문을 요청했을 때, 활동가는 이동의 불편과 원인에 관해 설명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단체가 새롭게 계획하는 시설은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설계부터 고려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인 카라의 반려동물복지센터 ‘더봄센터’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을 모두 설계에 포함했습니다.

## 5-4 오프라인 접근성②

###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시청각 장애인

#장애 #접근성 강화 #활동 지원

#### 사례

시각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과 함께 카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적 있습니다. 입양카페 아 름품에도 시각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논평

동물권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 받을 때부터 장애인 이동권이나 접근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비장애인만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시 장애인이 배제됩니다.

홍보게시물에 장애인 활동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가 있다면 신청서에 남기거나 사무국으로 미리 알려달라는 최소한의 안내만 있어도 장애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없이 장애인 참여만을 독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 대안

비장애인만을 기준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참여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고민합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예산이 필요한 수화통역 지원이나 강연 내용을 활동가가 현장에서 속기하여 빔프로젝터로 공유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시력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큰 글씨 인쇄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후 장애인 신청에 관한 안내를 홍보게시물에 기재하며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 5-5 모두를 위한 화장실 만들기

#장애 #성별 정체성 #나이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

#### 사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 더불어숨센터에는 다섯 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성 활동가에 비해 여성 활동가가 훨씬 많다 보니(성비 약 6:1) 1층 2층 4층은 여자 화장실, 3층은 남자 화장실, 5층은 모든 젠더(all-gender) 화장실로 운영 중입니다. 5층은 원래 여자 화장실이었으나 성별 이분법에 따라 설계된 화장실이 시스젠더(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성별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숨센터에 엘리베이터,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 논평

기존의 화장실은 시스젠더, 비장애인, 성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젠더나 젠더퀴어 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이 배제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카라 더불어숨센터는 건립 시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이미 있던 건물을 매입해 사용했습니다. 당시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전문가로부터 받았습니다. 휠체어 사용자의 건물 접근 자체가 어려워 화장실을 개선하더라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 공간이 협소해서 아동용 변기 등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카라는 2019년 겨울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파주에 카라 더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더봄센터뿐 아니라 앞으로 카라가 개관하거나 임시 대여하게 될 공간이 있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 대안

[마포 카라 더불어숨센터] 지하 교육장과 1층 입양카페 아름품에 방문하는 일반 시민의 접근이 많은 1층 화장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전환해 운영해볼 수 있습니다.

[파주 카라 더봄센터] 더봄센터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인지 살펴보고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이 배제되지 않는 화장실을 최소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합니다.

### 함께 생각해보기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봅니다. 최근 몰카 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설치될 시설이 여성에게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봅니다.

## (사)동물권행동 카라

**슬로건**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비전**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미션**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봉사자들의 모임인 '아름품'으로 시작되어 동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입양확산과 유기근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서부터, 산업계의 반생명적인 동물착취에 저항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전시·체험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길고양이 등 위기에 처한 모든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카라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더불어숨센터를 중심으로 외면당해온 동물들의 실상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교육, 캠페인, 법/정책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 카라는 2019년 겨울 개관 예정인 파주의 카라 더봄센터 건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봄센터는 유기와 학대로부터 구조된 200여 마리의 동물이 지낼 수 있는 공간, 지역 주민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든 시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뤄집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동물과 인간의 바람직한 공존의 상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동물권 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함께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주시기를 염원합니다.

카라 홈페이지 [www.ekara.org](http://www.ekara.org)  
카라 더봄센터 [paju.ekara.org](http://paju.ekara.org)  
카라 동물권 교육 [www.karaedu.org](http://www.karaedu.org)  
카라 이메일 [info@ekara.org](mailto:info@ekara.org)  
카라 대표전화 02-3482-0999

## 함께 한 사람들 후기

### 나미 교육아카이브팀

우리 사회에서 배제 당하는 존재를 줄여나가는 활동을 한다고 믿지만, 우리의 운동이 '정답'이 나 '절대 선'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의를 경계하고, 활동에서 실수를 줄이고자 인권길라잡이팀에 참여했습니다. 동물권 활동가들과 인권을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시간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나연 기획운영팀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은 동물에 대한 우리의 변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동물에 대한 오해, 무지, 오만, 편견, 혐오 등 낡은 고정관념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경계에서 보다 유연한 동물권 활동을 하는 데 이 책자가 좋은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 교육아카이브팀

인권길라잡이를 만들면서 우리는 서로 진솔한 의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문제의식과 새로운 활동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기쁩니다. 우리의 첫 시도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진정성이 널리 가닿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누구나 존중 받을 수 있는 동물권 운동이 되기를!

### 현선 동물복지팀

결과물이 완벽하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저희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많은 동물권 활동가들이 좀 더 옹호 방법으로 동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현임 교육아카이브팀

동물권행동 카라 내에서 인권에 대해 각자의 고민 지점들을 모아 이야기 해 보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한 권의 책자로 나오게 되다니 지난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뿌듯하기도 하고, 부족하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결과물도 의미 있지만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즐겁고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권리에 이바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주세요!

## 인권단체 목록

난민인권센터 [www.nancen.org](http://www.nancen.org)

노들장애인야학 [www.nodl.or.kr](http://www.nodl.or.kr)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www.e-loom.org](http://www.e-loom.org)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www.ahacenter.kr](http://www.ahacenter.kr)

인권교육센터 들 [www.hrecenter-dl.org](http://www.hrecenter-dl.org)

인권연대 [www.hrights.or.kr](http://www.hrights.or.kr)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http://www.sarangbang.or.kr)

인권재단 사람 [www.hrfund.or.kr](http://www.hrfund.or.kr)

장애여성 공감 [www.wde.or.kr](http://www.wde.or.kr)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 [www.beminor.com](http://www.beminor.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http://www.nodong.org)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www.sadd.or.kr](http://www.sadd.or.kr)

차별금지법제정연대 [www.equalityact.kr](http://www.equalityact.kr)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멍동 [www.ddingdong.kr](http://www.ddingdong.kr)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cafe.naver.com/asunaro](http://cafe.naver.com/asunar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http://www.childfund.or.kr)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www.chingusai.net](http://www.chingusai.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www.lsangdam.org](http://www.lsangdam.org)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의전화 [www.hotline.or.kr](http://www.hotline.or.kr)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ww.wmigrant.org](http://www.wmigrant.org)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http://www.lgbtpride.or.kr)

